

내 인생의 스승, '서점 사람들' (5)

책에 대한 대중감각을 키워준

도매상의 구매담당자들



글_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소설 동의보감》(이은성) 상권이 출간된 것은 1989년 2월 말이었고 상중하 모두 완간된 것이 그해 3월 중순이었다. 그 책은 초판 1만 짚을 발행했다. 지금이야 1만 부 제작이 다반사지만 그때만 해도 적지 않은 부수였다. 그리고 일간지에 5단통 광고를 냈다. 그 광고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시인 김정환은 〈뿌리와 날개〉 1995년 2월호에 나를 일러 “창비의 ‘5단통 광고시대’를 강행한 장본인”이라고 썼다.

하지만 독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5월 중순까지 초기 배본한 것 외에 재주문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책의 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편집부의 한 직원은 ‘창비가 이런 책까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출간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지만 그에게 “잘 생각했다, 만약에 그 원고를 포기하고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술은 한번 거하게 사마”라 농담 삼아 말했다.

이미 말했듯이 《소설 동의보감》은 회사 내에서 논란이 많았다. 무엇보다 작가가 끝을 맺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춘하추동의 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씌어지지 못한 데다 소설 속 역사적 사실도 확실하지 않은 곳이 꽤 있었다. 내의원의 수, 유의태와 허준의 출생연도 등도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저자가 생존해 있다면 고칠 수 있었지만 유고라 고치기 어려웠다. 또 창비의 문학과정신과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개인의 출세담’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창비의 민족문화이나 민중문화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니 반대가 없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종종 《하얀 집의 왕》이 아니었다면 과연 《소설 동의보감》이 출간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986년 8월 5일 국내외의 압력 때문에 창작사라는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계간 〈창작과비평〉의 복권과 창작과비평사라는 출판사 이름의 회복이 가능해진 것은 6월 항쟁 이듬해인 1988년 2월이었다. 복간호는 초판을 1만 7천 부 발행했고 곧 2쇄 5천 부를 발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책들은 거의 다 팔렸다. 나중에는 영인본으로도 꽤 발행했으니 실제 발행부수는 3만 부가 넘었다. 하지만 창작사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책은 잘 팔리지 않아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다.

그 와중에 《하얀 집의 왕》이 입고됐다. 이 소설은 정식 등단작가의 작품이 아닌데다 글도 매끄럽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량도 뒤에 책으로 출간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시영 선생은 1988년 구정휴가 내내 그 원고의 교열을 보았다. 하지만 편집부 직원들이 그런 것을 달갑게 봐줄 리 없었다. 그러니 여기서도 ‘창비가’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 살림을 책임지는 이시영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 책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젊은 직원들을 설득했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만 봐달라’고까지 사정하셨을 것으로 추측된다.

논란 끝에 출간된 《하얀 집의 왕》은 한 방송의 마감뉴스에 잠깐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2천 부가 넘게 주문이 들어왔다. 4,500원 정가였던 그 책은 2만 3천 부 정도가 팔

렸다. 하지만 그 정도 판매로도 숨통이 조금 트일 만큼 살림이 어려웠다.

요금 1만 부 넘는 소설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할 것이다.

고정관념 깨 베스트셀러, 《소설 동의보감》

《소설 동의보감》의 원고를 백낙청 선생께 소개한 이는 이진섭 선생이었다. 그는 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소개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그가 근무하던 조선일보 출판부에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 원고를 백 선생께서 가져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셨냐고 여쭙보았더니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셨다고 하셨다.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재미는 있더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 창비의 대형 베스트셀러는 이상하게도 백 선생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길>에 첫 연재된 글을 보고 저자인 유홍준 선생께 전화한 것이 계기가 됐고 《서른, 잔치는 끝났다》(최영미)도 백 선생의 큰딸인 영경 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받은 원고인데 선생께서 ‘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회사에 가져오신 것에서 비롯됐다.

그런 것을 보면 백 선생께서는 분명 대중 감각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작품을 찾아 회사에 악착같이 권유하지 않았다. 핵심간부가 되었을 때 나는 백 선생께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면 꼭 공항에 마중을 갔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져오신 가방 하나는 바로 회사로 가지고 오는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늘 학술서만 가득했지 그 흔한 베스트셀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편집국장은 백 선생께서 외국에 다녀오실 때마다 그 책을 검토하느라 힘들어하곤 했다.

《소설 동의보감》은 정말 재미있었다. 내게 온 원고는 부산의 한 주간신문에 연재됐던 글을 복사한 것이었는데 그 원고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읽다가 종종 내릴 곳을 지나칠 정도로 재미있었다. 출장중에도 그 원고를 들고 다니며 서점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그 책의 출간은

편집회의에서 결정됐다. 내가 알기로 편집회의에서는 출간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하얀 집의 왕》의 덕이 아닐까 싶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계열화된다. 앞의 사건(《하얀 집의 왕》 출간)이 뒤의 사건(《소설 동의보감》 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소설의 초기 반응은 정말로 의외였다. 그때 가장 큰 도매상은 진명서적이었다. 당시 진명서적은 최선호(현 세계사 대표), 박종성 두 공동대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내부 운영은 주로 박 사장이 담당했고 창비 담당자는 이재주 과장이었다. 그는 마산의 한 서점에서 근무하다 ‘스카웃’ 당해 진명의 구매담당자로 있었다. 진명에서는 《소설 동의보감》 1000권을 매절해 그 중 절반 정도를 소매서점에 배분했지만 정말 두 달 가량은 품ขาด도 하지 않았다.

좁은 매장에 1500부를 쌓아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당시 박 사장과 이 과장은 독려를 했으면 했지 ‘반쯤’은 하지 않았다. 10년도 더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진명의 일부 직원들은 점심을 먹고 들어와 소화가 되지 않을 때면 그 책들을 발로 빵빵 차며 “여기가 창비 창고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사장과 이 과장은 이 책이 결국은 팔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듯하다.

탁월한 감각, 기획력 지닌 도매상 책임자들

사실 나는 영업 현장에서 이렇게 도매상 책임자들의 도움을 무척 받았다. 그들의 대중 감각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울산 문화의 이창훈을 들 수 있다. 그는 나중에

집안사정 때문에 부득이 울산을 뜰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상경한 그는 한 출판사에 잠시 머물렀다가 바움출판사를 설립한 뒤 탁월한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2004년에 과로로 숨졌지만 그가 살아있었다면 앞장서 출판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줬을 것이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내가 신경숙 소설집이 나온다고 말하자 그는 소설의 제목과 게재지 이름을 불러달라



고 말했다. 그리고 울산대학에 가서 그 글을 모두 복사해 읽고는 제목은 이래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아마도 몇 부 정도는 팔릴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말했다. 또 책이 내려가면 “형, 내가 천부 받았잖아, 500부 정도 팔았는데 오늘 몇 부 재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의미는…” 하며 자기 나름의 전략을 말하곤 했다.

그들은 정말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대중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도매상 담당자들은 왜 그리 술이 세던지, 나는 수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한 번 술을 먹으면 밤을 새곤 했다. 나는 아예 단골 술집은 몇 군데 정해두어야 했다.

그런데 《소설 동의보감》의 실마리를 풀어준 이는 교보문고의 문학담당 신용군 과장이었다. 그도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듯 직원을 통해 조선일보에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구에게 서평을 쓰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문열’이라고 답했지만 말끝에 힘은 없었다.

1985년 1월 30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민족문학의 밤’ 행사에서 행한 강연에서 백낙청 선생이 “(이문열의) 《영웅시대》와 같은 황당한 이데올로기 소설이 문제작이고 분단문학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요즘의 풍토에서는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나 《빠앗긴 일터》 같은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소설 따위는 다 없어져라고 말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발언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그 강연 내용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에도 실려 있는데 “《영웅시대》를 예로 든 것은 이 작품이 절대적으로 가장 황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쏟아진 온갖 찬사와 흥분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이 붙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통해 인식 전환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의 출판담당 최구식 기자(현 국회의원)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해 5월 16일에 《소설 동의보감》에 대한 이문열 서평이 실렸다. 《사람의 아들》 이후 1980년대 내내 베스트셀러 작가로 군림해온 그가 “《소설 동의보감》이 주는 감동이 이처럼 큰 까닭은 무엇일까. 권유 때문에 마지못해 잡았는데도 한번 책을 펴자 하루밤 하루낮을 꼬박 바쳐 세 권을 내리 읽게 한 이 강력한 흡인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쓴 서평의 효

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다음해에 텔레비전 드라마로 방영될 때는 10만 질을 한꺼번에 돌렸는데 30만 부를 한꺼번에 쌓아놓으니 정말 기관이었다. 한 도매상에서는 1만 질을 주문하기도 했으니 책이 그 정도로 팔릴 수 있음을 경험한 것은 내게는 너무나 행운이었다.

그 기사가 나가자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다. 최 기자가 《소설 동의보감》이 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편집부의 한 직원이 “우리가 바빠서 갈 수는 없으니 직접 오시면 70%에 드리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나중에 최 기자로부터 몇 번이나 들었다.

이 책의 성공 덕에 나는 1991년에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주관한 14박 15일의 유럽 시찰 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에 들른 출판사는 런던의 루틀리지(Routledge)였다. 그곳 편집자는 우리 일행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의식했던지 자사에서 출판한 학술서 세 권, 《Managing The Global Firm》 《New Directions for American Policy in Asia》 《Local Management of Schools》를 들고 나와 각기 1,400권, 900권, 70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데도 ‘성공’ 했다는 설명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그 정도 팔리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른 할로우의 롱맨그룹에서 컴퓨터 화면을 유연히 보았는데 롱맨 창고에 몇 부, 싱가포르 창고에 몇 부, 판매원마다 일·주·월별 판매부수와 누계 판매부수, 중쇄 부수 8만 부라는 통계를 보고는 속이 뒤집어졌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된 책의 70%가 실용서라는 사실을 알고는 책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했다. 그 시찰을 다녀온 뒤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우리 출판의 열악한 상황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여행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여행은 망외의 소득도 있었다. 일행 가운데 최구식 기자를 비롯해 다섯 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로부터 홍보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내 일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

(다음 호에 계속)